영어어문교육 *제30권* 4호 2024년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24.30.4.145

그림책이 초등학생의 영어 연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방정선
(대구영선초등학교)

Bang, Jeongsun. (2024). The Effects of picture books on primary students' English collocation learn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0*(4), 145-165.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picture books on English collocation learning among primary students. Fifty-eight students participated and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 collocation list, text, and picture book group. Collocation learning was assessed using both post and delayed tests to compare the outcomes across the groups.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d whether learning outcomes varied depending on the L1-L2 congruency of the colloca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three groups demonstrated positive effects on collocation learning,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overall. Interestingly, differences in learning outcomes emerged based on L1-L2 congruency. For congruent collocations, the collocation list group achieved the highest scores on both the post and delayed test.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4) was observed only in the post-test. In contrast, for incongruent collocations, the picture book group showed higher learning effects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in both the post and delayed test, but only the delayed test result reached statistical significance (p < .001). The study suggests that while picture books may not offer significantly better learning outcomes compared to a collocation list or text, they may be beneficial for the long-term retention of incongruent collocations.

[picture books/English collocation learning/L1-L2 congruency/primary English education, 그림책/영어 연어 학습/L1-L2 일치성/초등 영어 교육]

I. 서론

문학작품의 한 종류인 그림책은 초등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교과목을 지도할 때 수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 국어 교과서에는 여러 편의 그림책이 수록되어 있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박치범, 2019), 도덕, 사회, 미술 등과 같은 교과를 지도할 때도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 여러가지

그림책들이 수업에서 활용되었다(이순아, 임성만, 2021). 최근 들어, 초등 영어 교과를 지도할 때에도 그림책을 활용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오마리아, 2023; 임보라, 김혜리, 2024; 차수미, 2023). 이는 초등 영어 교사들이 그림책이 영어 교과 지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어 교육에서의 그림책의 효과에 대한 관련 문헌들은 그림책을 훌륭한 교육적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Donelson과 Nilsen (2005)은 그림책과 같은 아동 문학 작품이 스토리 흐름이나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 복잡하지 않고 구어적인 표현이 많아서 외국어 학습자에게 좋은 교수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혜리 외(2018)는 영어 그림책이 학생들의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즐거운 독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고 상상력을 확장하여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그림책 속의 삽화를 통해 텍스트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예술적인 감각까지 함양할 수 있어 그림책을 영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총체적인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어 교육적인 가치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초등 영어 교육에서의 그림책의 효과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영어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영어 어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e.g., 김혜리, 이세운, 2013; 김호정, 김혜리, 2023; 박세연, 홍선호, 2022). 아쉽게도,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그림책을 영어 교육에 활용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림책 활용이 다른 교수학습 방법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더불어, 많은 연구들이 영어 교육의 효과를 영어 단일 어휘 지식에 국한하여 살펴본 경향이 있다. 특히, 영어 연어와 같은 어휘군 지도와 관련하여, 그림책 활용이 초등 영어 학습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 목록 학습이나 텍스트 읽기를 활용한 학습 등 다양한 어휘 학습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두 개 이상의 어휘로 이루어진 연어(collocation)는 L2 학습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Ji, 2018; Nam, 2013). Hill (2001)에 따르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의 70%가 연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연어 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의 L2 유창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Lewis, 1997). 이러한 연어 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L2 학습자들은 연어 습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Altenberg & Granger, 2001; Bahns & Eldaw, 1993) 심지어 상위 수준의 L2 학습자들 조차도 L2 연어를 사용할 때 잘못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Laufer & Waldman, 2011; Nesselhauf, 2003). 이에 많은 학자들이 연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실행하였다(Boers 외, 2014; Choi, 2017; Laufer, 2011; Pellicer-Sánchez, 2015; Peters, 2014; Webb 외, 2013). 이들 연구는 연어 학습에서의 입력강화(input enhancement), 들으면서 읽기(reading-while-listening), 맥락 또는 탈 맥락속에서 반복 읽기, 사전 사용 등의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처럼 영어 교육에서 연어 학습의 중요성과 어린이를 위한 효과

적인 학습자료로서의 그림책의 효과가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 학습에 그림책을 적용한 구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연어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L1-L2 일치성(Peters, 2016; Wolter & Gyllstad, 2011, 2013; Yamashita & Jiang, 2010)을 고려하여 그림책 효과를 연구한 사례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그림책이 초등학생의 연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L1-L2 일치성에 따라 연어 유형을 구분하여 학습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림책 활용 학습 방식과 단어 목록 활용, 텍스트 활용 등 다양한 연어 학습 방법 간의 효과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 학습 방법의 효과가 L1-L2 일치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그림책이 초등학생의 연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그림책이 초등학생의 연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연어 목록,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
2. 그림책, 연어 목록, 텍스트를 활용한 연어 학습 효과는 L1-L2 일치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그림책과 영어교육

그림책은 아동 문학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 속 제시되는 이야기와 관련 장면들이 글과 그림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책 속의 그림은 글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이다(Anstey & Bull, 2018; Nikolajeva & Scott, 2013). 현재까지 그림책을 활용한 어린이 영어교육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이 다수 실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들은 그림책이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 관련 연구 내용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Birketveit와 Rimmereide (2017)가 진행한 해외 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학습이 어린이들의 영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흥미와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영어를 L2로 학습하는 21명의 11살 노르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가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기간 동안 연구자가 선정한 70권의 그림책 중 최소 세 권을 읽도록 한 뒤, 설문조사, 관련 글쓰기 활동,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과 인터뷰의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 영어 능력 향

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림책의 그림과 글의 상호작용에 관한 인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글쓰기 능력은 학생들의 글 속에서 글의 길이의 변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통한 형용사와 부사의 사용의 차이, 글의 구조적 특징과 언어 사용 등을 양적 또는 질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한 후에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아지고, 다수의 학생들이 그림책 속의 어휘를 활용하여 쓴 글이 길어지고 부사구 사용이 늘어나는 등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그림책이 어린이의 영어 학습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실행되었는데 해외의 연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어 읽기나 어휘 능력과 같은 언어 능력 향상과 흥미와 자신감 신장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 작용하는 그림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김혜리와 이세운(2013)은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그림책에 수록된 삽화들을 활용하여 이야기의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이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16편의 영어 그림책을 선별하여 약 6개월간 아침활동 시간과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약 2시간 정도의 그림책 읽기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그림책을 읽기 전 활동으로 그림책에 제시된 삽화를 보고 이야기를 예측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 저널 쓰기, 예측 쓰기 학습지, 설문지, 면담, 학생의 수업 소감문, 교사의 관찰일지, 실험 전후의 초등영어능력평가 주니어(PELT Junior) 2급 시험 점수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그림책 속의 삽화를 통해 다양한 예측 활동을 함으로써 책 속의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텍스트 이해를 넘어선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그림책이 학생들의 영어 읽기와 어휘 능력의 향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흥미, 자신감, 창의성 발달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박세연과 홍선호(2022)는 그림책이 초등학생의 영어 어휘 능력 신장과 학습의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99명과 6학년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11주에 걸쳐 정규 영어 시간에 그림책의 삽화 전체를 제공한 집단과 삽화의 일부분만 제공한 집단으로 나누어 영어 어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4권의 그림책을 선별하여 그림책 읽기 수업을 실행한 후, 각 학년별 그림책 속에서 각각 12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어휘의 의미를 우리말로 쓰는 어휘 의미 평가를 사전, 사후, 지연 평가로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그림책 속의 삽화가 학습자들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이 종료된 직후에 흥미도, 자신감, 자기주도 읽기 능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삽화를 전체로 제공한 집단과 일부 제공한 집단 모두 학생들의 단기 및 장기 어휘 습득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삽화를 모두 제공받은 집단의 사후 및 지연 어휘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림책 속의 삽화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학년 및 학습자의 영어 능력 수준에 따라 삽화의 비중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4학년 경우에는 학습자의 영어 수준과 상관없이 삽화를 전체로 제공하는 것이 일부분만 제공하는 것 보다 학습 효과가 더 큰 반면, 6학년의 경우에는 상위 수준의 학생에게는 그림책 속의 삽화의 비중이 어휘 학습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김호정과 김혜리(2023)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의 영어 어휘 능력 향상에 그림책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매일 그림책 읽기가 초등학생의 어휘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들은 매일 아침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10분동안 그림책 읽기 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2주간 한 권씩, 12주간 총 여섯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게 한 후 각각의 그림책에 포함된 10개의 어휘 지식(총 60개의 어휘)을 평가하여 그림책을 읽기 전에 실시한 사전 어휘 평가 결과와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총 다섯 권의 그림책에 포함된 어휘 지식이 그림책 읽기를 하고 난 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어휘 지식 시험 결과로 나타난 양적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실험 처치가 끝난 후, 학생들이 작성한 사후 감상문에서도 그림책 읽기가 학생들의 영어 어휘 지식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국내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그림책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들은 학습자의 영어 어휘 지식 습득과 같은 영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그림책을 영어 교육에 활용하기 전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기 때문에 다른 교수학습 방법과 비교한 효과의 차이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연구들이 영어 교육의 효과를 주로 영어 단일 어휘 지식에 한정하였다. 특히, 영어 연어와 같은 어휘군 지도와 관련하여, 그림책 활용이 초등 영어 학습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어휘 교수학습 방법들, 예를 들어 단어 목록을 활용한 학습이나 읽기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그림책이 미치는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그림책을 활용하여 영어 연어를 학습할 때, 다른 영어 학습 방법들과 비교하여 그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2. 연어의 L1-L2 일치성

McCarthy (2018)는 연어란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그룹으로 자주 사용되는 어휘군이라고 소개하였다. 연구자들은 제2외국어 학습자들이 연

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L2 유창성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원어민 화자가 구사하는 언어 표현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였다(Wray, 2002). 예를 들어, 콧물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인 ‘runny nose’는 ‘runny’와 ‘nose’의 두개의 어휘가 합쳐져서 콧물이라는 영어 표현을 가진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며 이러한 표현들을 연어라고 볼 수 있다.

연어를 모국어(L1)으로 번역할 때 그 의미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일치 연어와 비일치 연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일치 연어는 L1과 L2간에 의미가 동일한 어휘로 연결될 수 있는 반면, 비일치 연어는 L1과 L2간의 의미가 일대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Yamashita & Jiang, 2010). 예를 들어, 영어 연어인 ‘brush teeth’는 한국어로 ‘이를 닦다’라는 의미인데 ‘brush’는 ‘닦다’라는 한국어의 의미와, ‘teeth’의 경우에는 ‘이’라는 한국어의 의미와 일치하여 일치 연어로 볼 수 있다. 반면, ‘cut down’의 경우 한국어로 ‘줄이다’의 의미를 지니는 영어 연어인데 연어를 구성하는 어휘의 한국어의 의미는 ‘cut’은 ‘자르다’, ‘down’은 ‘아래로’라는 의미를 지녀 한국어와 그 의미가 일대일로 일치하지 않아 비일치 연어로 볼 수 있다.

L1-L2 일치성이 L2 연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이전의 연구들은 L1의 간섭으로 인하여 비일치 연어가 일치 연어보다 학습하기가 더 힘들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Nesselhauf, 2003; Peters, 2016; Wolter & Gyllstad, 2011,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연어 학습의 효과를 검증할 때 L1-L2 일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Nesselhauf (2003)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대학생 3-4학년들이 쓴 32편의 영어 에세이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동사+명사’ 형태의 연어 사용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일치 연어와 비일치 연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수준 높은 영어 능력을 함양하려는 학생들인데 이들이 보여준 영어 연어의 오류의 56%는 대부분 L1 (독일어)의 의미가 영어 표현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do my homework’의 영어 연어 표현을 ‘make my homework’ (독일어로 mache meine hausaufgaben)로 표현하는 등과 유사한 오류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L1이 영어 연어를 학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일치 연어가 일치 연어보다 습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Peters (2016)의 연구 결과에서 연어의 L1-L2 일치성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달라짐을 입증하였다. 그는 41명의 네덜란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8개의 영어 연어를 학습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 9개는 네덜란드어와 그 의미가 일치하는 일치 연어, 나머지 9개는 네덜란드어와 그 의미가 일대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비일치 연어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 연어 테스트에 참여한 후 온라인 상에서 18개의 연어 목록을 명시적인 연어 목록을 통해 학습하고 유의어나, 반의어 등을 찾거나 빈칸 채우기 등과 같은 온라인 연습 문제에서 연어가 2번 더 제시되어 총 3번의 학습 기회를 가진 후 사후 연어 테스트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사후 평가에서 비일치 연어 점수가 일치 연어 점수보

다 낮게 나타나 비일치 연어의 학습이 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2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한 위의 두 연구와는 달리, Wolter와 Gyllstad (2011)는 스웨덴어를 L1으로 하는 영어 학습자 31명과 영어를 L1으로 하는 원어민 화자 37명을 대상으로 일치 연어와 비일치 연어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반응 시간을 측정하여 영어 연어 처리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웨덴어를 L1으로 하는 영어 학습자들은 비일치 연어보다 일치 연어를 더 빠르게 처리하는 데에 반해, 원어민 화자는 일치 연어와 비일치 연어를 처리하는 속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또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L1-L2 일치성에 따라 L2 연어 학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선행 연구에서 L2 학습자들은 연어를 학습할 때 L1-L2 일치성에 따라 학습 효과에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비일치 연어의 습득이 일치 연어의 습득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1-L2 일치성은 그림책, 연어 목록, 텍스트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 연어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설계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 현장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연어 학습과 연어 목록 및 텍스트를 활용한 학습의 효과를 비교하고 연어의 L1-L2 일치성에 따라 이러한 학습 방법들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의 대도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6학년 3개 학 반의 학생 58명(남: 28명, 여:30명)이다. 각각의 반은 연어 목록을 통해 학습을 하는 집단 19명, 텍스트를 통해 연어 학습을 하는 집단 20명,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통해 연어 학습을 하는 집단 19명,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뉘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전에 이루어진 사전 연어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세 집단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p = .997$) 동질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사전 연어 테스트 점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N*
연어 목록	2.26	2.63	19
텍스트	2.20	2.62	20
그림책	2.21	2.55	19

2. 목표 연어

목표 연어는 총 16개로(일치 연어 8개, 비일치 연어 8개), 2008년에 미국에서 초판 된 그림책인 '10 things I can do to help my world' (Walsh, 2009)에 제시된 표현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초등학교 영어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어휘들을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또한 추출한 연어들은 현대 미국 영어 코퍼스(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에서 그 빈도와 상호 정보(mutual information) 지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Hunston (2022)에 의하면 연어의 상호 정보지수가 3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유의미한 연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그림책 속에 제시된 연어 표현들을 활용하므로 상호 정보 지수가 3보다 낮은 경우라도 연어가 그림책의 맥락속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2
현대 미국 영어 코퍼스에 나타난 목표 연어의 빈도와 상호 정보 지수

일치 연어	*F*	*MI*	비일치 연어	*F*	*MI*
leave the room	2231	2.94	turn off	5966	4.18
save water	214	0.68	throw away	4269	5.15
brush teeth	1224	8.68	keep safe	3082	4.27
feed the birds	37	2.62	get ready	22147	2.44
unplug the TV	10	4.76	cut down	5879	3.05
walk to	35589	1.49	sort the recycling	9	0.56
plant seeds	320	5.84	take energy	679	1.79
around the house	4791	7.59	something new	35	2.60
M	5552	4.33	*M*	5258	3.01

Note. F = frequency. *MI* = mutual information scores. (Davies, 2008-present)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이 초등학생의 연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어 목록, 텍스트, 그림책을 활용하여 연어를 학습하는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였다. 연어 목록 집단의 경우, 일반적인 영어 수업 현장에서 어휘를 지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탈 맥락적인 형태, 즉 그림이나 문장 등의 맥락적 정보가 없이 단순히 연어 표현만 제시한 카드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텍스트 집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그림책인 *10 Things I Can Do to Help My World*의 텍스트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읽기 자료로 수업에 활용하였다. 텍스트 속의 단어 수는 총 196개, 문자수는 공백을 제외하고 총 842개로 이루어졌다. 그림책 집단은 모든 학생들에게 실물 그림책을 한 권씩 수업시간에 제공하고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연어 수업은 주당 2시간씩 초등학교 정규 영어 수업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2주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집단별 수업 활동

집단	주차	주요 수업 활동
연어목록	1	(1차시) 연어카드를 활용한 듣기/말하기 (2차시) 연어카드를 보고 의미파악하기
	2	(3차시) 연어카드를 소리 내어 읽고 녹음하기 (4차시) 연어카드와 의미카드를 활용하여 매칭게임하기
텍스트	1	(1차시) 텍스트를 읽어주고 의미파악하기 (2차시) 텍스트 들으며 읽기(reading-while-listening)
	2	(3차시)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기 (4차시) 텍스트를 활용하여 직접 스토리텔링하기
그림책	1	(1차시) 그림책을 읽어주고 의미파악하기 (2차시) 그림책 들으며 읽기(reading-while-listening)
	2	(3차시)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기 (4차시) 그림책을 활용하여 직접 스토리텔링하기

본 연구는 2024년 7월 첫째주부터 8월 다섯째주까지 총 9주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의 절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절차

시기	내용
2024년7월 첫째주	연어 사전 테스트 실시
2024년7월 둘째주	집단 별 연어 수업 실시(1-2차시)
2024년7월 셋째주	집단 별 연어 수업 실시(3-4차시), 연어 사후 테스트 실시
2024년8월 다섯째주	연어 지연 테스트 실시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일주일 전에 사전 연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사전 연어테스트는 그림책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문장 16개 안에 어울리는 연어를 기입하는 형식의 문항으로 제작되었다(부록 참고). 일주일 후에 학생들은 매주 2시간씩 세 가지 집단의 수업, 즉, 연어 목록, 텍스트,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각각 참여하였다. 2주간의 실험 수업이 끝나고 하루 뒤에 사후 연어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이후 6주뒤에 연어 지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연어 테스트는 각 문항당 1점씩 부여하여 총 16점 만점으로 스펠링의 오류가 있는 경우는 모두 0점 처리하였고, 정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부분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세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각 집단의 사전 연어 테스트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림책 집단의 연어 학습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 집단의 연어 테스트 점수의 사전, 사후, 지연 평가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이때 반복측도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점수 변

화와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연어의 L1-L2 일치성에 따른 세 집단간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혼합설계 분산분석(mixed design ANOVA)을 사용하여 집단별로 일치 연어와 비일치 연어 학습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들은 SPSS 22.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그림책, 연어 목록, 텍스트 활용의 연어 학습 효과 비교

시간(사전, 사후, 지연)에 따른 집단별 연어 테스트 점수의 변화 추이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반복측도 분산분석 결과, 각 집단별로 평가 시간에 따른 연어 학습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_{1,55} = 74.623$, $*p < .001$, partial eta squared = .576). 이는 각 집단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어 학습 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또한, 시간과 집단 간 상호 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_{2,55} = 10.171$, $p < .001$, partial eta squared = .270).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별로 연어 학습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반면, 집단 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_{2,55} = 1.251$, $p = .294$, partial eta squared = .043). 이는 전체적인 평균 점수에서 세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 및 지연 테스트에서 각 집단별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각각의 평가 시기에 따른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후 평가 결과의 경우, 연어목록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그 다음으로 그림책 집단, 텍스트 집단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별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75$). 지연 평가 결과의 경우, 그림책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하였고, 연어목록, 텍스트 집단 순으로 연어 지연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101$).

그림 1
평가 시기에 따른 집단별 연어 테스트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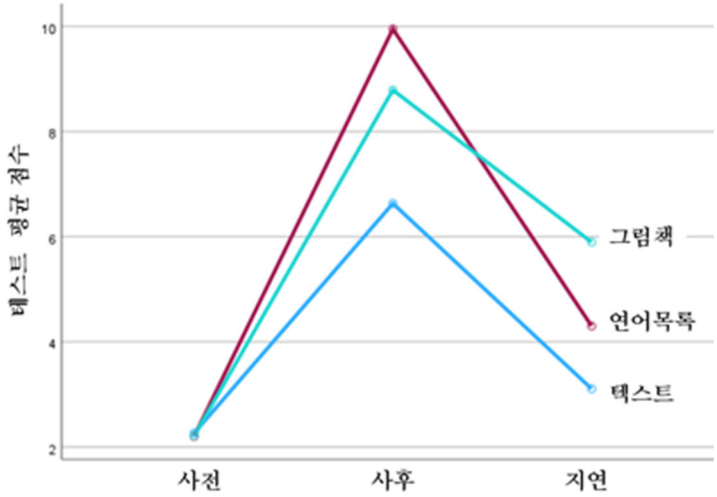

표 5
연어 테스트 점수 요약

시기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후	연어목록	9.95	4.80
	텍스트	6.63	3.73
	그림책	8.79	4.86
지연	연어목록	4.30	3.91
	텍스트	3.11	3.57
	그림책	5.89	4.33

종합하면,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이 영어 연어 학습에 효과가 있으나, 그 효과는 연어목록 집단이나 텍스트 목록 집단의 영어 연어 학습 효과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L1-L2 일치성에 따른 그림책, 연어 목록, 텍스트 활용 학습 효과 비교

L1-L2 일치성에 따른 세 집단의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한 결과, 연어의 종류(일치/비일치)에 대한 주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_{1,55}$ = 6.210, p = .016, partial eta squared = .101). 이는 각 집단별로 일치 연어와 비일치 연어 간 학습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연어의 종류와 각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_{2,55}$ = 20.456, *p < .001, partial eta

squared = .427). 이는 각 집단이 L1-L2 일치성에 따른 연어의 종류에 따라 각 집단별 학습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나타낸다.

1) 일치 연어의 집단간 학습 효과 비교

일치 연어의 경우, 세 집단의 사후 및 지연 평가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평가 시기 별로 각 집단의 점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일치 연어 테스트 점수 요약

시기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후	연어목록	6.10	2.53
	텍스트	3.47	1.98
	그림책	4.26	2.66
지연	연어목록	3.10	2.63
	텍스트	1.63	1.98
	그림책	2.32	2.29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치 연어의 경우 사후 평가에서 연어 목록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림책 집단, 텍스트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4). 지연 평가 결과의 경우에도 연어 목록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림책 집단, 텍스트 집단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151).

2) 비일치 연어의 집단간 학습 효과 비교

비일치 연어의 경우, 세 집단간의 학습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사후, 지연 평가의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비일치 연어 테스트 점수 요약

시기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후	연어목록	3.85	2.60
	텍스트	3.16	1.98
	그림책	4.53	2.46
지연	연어목록	1.20	1.47
	텍스트	1.47	1.71
	그림책	3.58	2.36

표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비일치 연어의 경우 사후 평가에서 그림책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어목록 집단, 텍스트 집단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213). 한편, 지연 평가 결과의 경우에도 그림책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텍스트 집단, 연어목록 집단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V. 논의

본 연구는 그림책이 초등학생의 영어 연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책을 이용한 연어 지도 방법과 연어 목록을 활용한 탈 맥락적 연어지도, 텍스트만을 활용한 연어 지도 방법의 학습 효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어의 L1-L2 일치성에 따라 집단별 연어 학습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여 그림책이 연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였다.

먼저, 그림책이 초등학생의 연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단기 및 장기적으로 그림책이 초등 연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어 어휘 학습에 미치는 그림책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맥상통한다(김혜리, 이세운, 2013; 김호정, 김혜리, 2023; 박세연, 홍선호, 2022). 단,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단일 어휘 학습 효과를 다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어휘군으로 이루어진 연어 학습에 있어서도 그림책이 효과적인 학습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초등 영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 등을 지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연어 목록(탈 맥락 속 연어 제시)이나 텍스트(맥락 속 연어 제시)를 활용한 학습과는 그 효과성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연어 목록이나 텍스트만을 활용한 영어 연어 학습도 효과적인 연어 학습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책으로 연어를 지도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학습 방법과 비교하여 더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연어 지연 평가에서 그림책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지만 사후 평가에서는 연어 목록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그림책의 긍정적인 효과(김혜리 외, 2018)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으로 그림책으로 연어를 지도하는 것이 연어 목록이나 텍스트 활용과 같은 다른 교수학습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짐작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승우 외(2016)는 초등학생의 영어 어휘 지도 방법과 관련한 29편의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명시적 어휘지도와 암시적 어휘지도에 따른 효과 크기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두 지도 방법 모두 유의미한 어휘지도 효과가 있지만, 두 방법 사이의 효과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배지

은과 김동규(2024)의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동화책 속의 어휘를 암시적 및 명시적 방법으로 지도한 결과, 단기 기억에서는 명시적 방법이, 장기 기억에서는 암시적 방법이 유의미한 어휘력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어휘를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혼재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군으로 이루어진 연어 학습에 있어서 명시적 또는 암시적 교수 접근 방식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과 텍스트를 제시한 집단은 암시적으로 연어를 지도하였고, 연어 목록을 사용한 집단은 명시적으로 지도하였는데 사후 또는 지연 평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은 점은 배지은과 김동규(202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다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단일 어휘를 다루었고, 본 연구에서는 어휘 군, 즉 연어를 다루었기 때문에 연어의 고유한 특성, 예를 들어 L1-L2 일치성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L1-L2 일치성에 따른 그림책, 연어 목록, 텍스트 활용의 세 집단의 영어 연어 학습 효과를 비교한 결과, 연어의 종류에 따라 집단별로 일치 연어와 비일치 연어 학습 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치 연어의 경우 사후 평가에서만 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 = .004), 연어 목록을 활용한 집단이 그림책이나 텍스트를 사용한 집단보다 단기적인 영어 연어 학습에서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즉, 일치 연어의 단기 기억 측면에서는 그림책이나 텍스트와 같은 암시적인 접근보다 연어 목록과 같은 명시적인 접근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L2 연어의 의미가 L1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일치 연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brush teeth’와 같은 연어의 경우 ‘닦다’라는 의미의 ‘brush’와 ‘이’라는 의미의 ‘teeth’의 조합이 일대일로 연결이 되어서 상황이나 맥락이 배제된 연어 목록으로 제시하였을 경우에 학생들의 기억에 좀 더 효과적으로 남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지부하이론(Mayer, 1997)에 따르면, 다양한 정보의 과다한 제시는 학생들의 인지과부하(cognitive overload)를 초래하여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어 목록을 사용하여 일치 연어를 지도했을 경우에 그림책이나 텍스트와 같이 학생들에게 노출된 추가적인 맥락적 정보를 배제하여 학생들이 좀 더 연어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지적 부하를 줄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일치 연어의 경우에는 세 집단의 지연 평가 결과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p < .001), 그림책으로 연어를 학습한 집단이 텍스트 집단이나 연어 목록으로 학습한 집단보다 장기적으로 비일치 연어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으로 비일치 연어를 지도하면 장기 기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과는 교육적으로 주목할만하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Nesselhauf, 2003; Peters, 2016; Wolter & Gyllstad, 2011) 비일치 연어는

다수의 L2 학습자들이 L1의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아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사후 및 지연 연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연어 목록 집단과 텍스트 집단의 경우에는 일치 연어의 점수가 비일치 연어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림책 집단의 경우에는 사후 및 지연 평가 결과 모두 비일치 연어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연어 지도의 명시적/암시적 접근 방법의 효과 차이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암시적 접근법인 그림책 활용이 연어 목록을 활용한 명시적 접근 방법보다 지연 평가에서 유의미한 비일치 연어 학습효과를 보여주었지만, 텍스트 활용 집단도 동일한 문학적 스토리를 제시한 암시적인 연어 지도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시적 접근의 효과로 보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그림책의 삽화가 문학적 텍스트의 맥락적 상황을 시각적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비일치 연어의 장기 기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박세연과 홍선호(2022)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그림책 속의 삽화를 전체적으로 제공한 집단과 일부만 제공한 집단 간에 영어 어휘의 장기 기억 유지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전체 삽화를 제공받은 집단이 삽화의 일부분만 제공받은 집단에 비해 어휘를 장기적으로 더 잘 기억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그림책에 제시된 삽화가 특정 어휘 지식을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비일치 연어의 학습이 어려운 큰 요인이 L1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때(Nesselhauf, 2003), 비일치 연어의 경우 L1 번역을 제시하는 것보다 연어의 의미를 내포하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연어의 의미를 기억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일치 연어 학습의 장기적 효과는 그림책이 다른 교수법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Paivio (1991)의 이중 부호화 이론(dual coding theory)에 근거하여 비언어적 시각 자료인 그림이 비일치 연어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 영어 교육에서 비일치 연어의 장기 기억을 위해 그림책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연어 학습이 연어 목록, 텍스트를 활용한 연어 학습과 비교하여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연어의 L1-L2 일치성에 따른 세 집단간의 학습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그림책, 연어 목록, 텍스트 활용 세 집단 모두 연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비일치 연어 학습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집단이 장기 기억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발견은 그림책이 특히 비일치 연어의 장기 기억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초등학생의 연어 학습에 미치는 그림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권의 그림책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림책의 효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16개의 연어 표현을 구성하는 단일 어휘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사전 어휘 지식의 깊이(김지윤, 조윤경, 2010)에 대한 변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한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 예를 들어 작업기억력(최성묵, 2016), 흥미(황선희, 김지영, 2017), 자아효능감(Chin, 2021) 등에 따른 학습 효과의 영향을 배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영어 연어 학습에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주요 변인들을 세밀하게 통제한 후에 그림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길 기대한다.

위의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그림책 연구들이 주로 어휘 지도에 대한 효과를 다룬 것에서 더 나아가 어휘군으로 이루어진 영어 연어를 그림책으로 지도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어휘 목록을 활용한 학습이나 텍스트만을 활용한 학습과 비교하여 그 효과성을 비교 검증하였다는 점에 학문적 공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유창성을 위해 필수적인 연어 학습에서 특히 비일치 연어의 장기 기억을 돕는 도구로서 그림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사들은 초등 영어 연어를 지도할 때 연어의 L1-L2 일치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수 학습자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치 연어의 경우, 연어의 의미와 형태를 연결함에 있어서 연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어휘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수업의 목적에 따라 연어 목록, 텍스트, 또는 그림책을 적이 하게 단독 또는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어 목록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일치 연어를 학습한 후에 텍스트 또는 그림책을 활용하여 맥락 속에서 연어를 지도하여 학생들의 영어 연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일치 연어를 지도할 경우에는 연어의 의미를 내포하는 관련 삽화나 그림책 등의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L2 학습자들이 비일치 연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동의한 것을 고려해 볼 때(e.g., Peters, 2016) L1의 간섭을 상쇄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비일치 연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림책은 이야기의 맥락속에서 다양한 연어 표현을 포함하고 이를 묘사하는 삽화를 제시하고 있어서 비일치 연어 습득의 어려움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교육 접근방법은 영어 연어 지식의 장기 기억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초등학생의 영어 유창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지윤, 조윤경. (2010). 연어지식과 어휘지식/영어능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사와 형용사 유의어를 중심으로. *영어학, 10*(3), 447-471. https://doi.org/10.15738/kjell.10.3.201009.447

김호정, 김혜리. (2023). 매일 영어 그림책 읽기 수업을 통한 초등영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 효과 및 어휘 활용 양상. *영어교과교육, 22*(1), 127-147.

김혜리, 이세운. (2013). 그림동화책의 삽화를 활용한 예측활동이 초등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연구, 27*(1), 41-74. https://doi.org/10.16933/sfle.2013.27.1.41

김혜리, 이예지, 박주은, 조정현, 김나영, 김유민, 이민희. (2018). *영어 그림책으로 하는 독서수업 A to Z*. 교육과학사.

남승우, 위송숙, 김정렬. (2016). 메타분석을 통한 초등학생 영어 어휘 지도방법의 효과 비교. *교원교육, 32*(2), 27-46.

박세연, 홍선호. (2022). 삽화가 초등영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초등영어교육, 28*(2), 77-96. https://doi.org/10.25231/pee.2022.28.2.77

박치범. (2019). 초등 국어 교과서의 이야기 그림책 수록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50*, 167-214. https://doi.org/10.17095/JRR.2019.50.6

배지은, 김동규. (2024). 동화책을 활용한 암시적·명시적 어휘 지도 방법이 초등학생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39*(1), 249-269. https://doi.org/10.23279/eer.39.1.202402.249

오마리아. (2023). 'Piggybook' 활용 초등 6 학년 영어 수업안. *초등교육연구, 34*(1), 89-94.

이순아, 임성만. (2021). 그림책 관련 초등교육 연구 동향 및 그림책 활용 양상 연구. *한국초등교육, 32*(1), 471-492. https://doi.org/10.20972/kjee.32.1.202103.471

임보라, 김혜리. (2024). 장르별 그림책 활용 영어 수업에서 나타난 초등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역량 양상. *초등영어교육, 30*(1), 5-25. https://doi.org/10.25231/pee.2024.30.1.5

차수미. (2023).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초등학교 1 학년 학습자들의 어휘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1), 99-113.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1.99

최성묵. (2016). 주석, 작업기억력, 그리고 L2 어휘습득. *현대영미어문학, 34*(3), 247-270. https://doi.org/10.21084/jmball.2016.08.34.3.247

황선희, 김지영. (2017). 영어 동화를 활용한 과업 기반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어휘학습, 어휘기억,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어문교육*, *23*(2), 103-130.

Altenberg, B., & Granger, S. (2001). The grammatical and lexical patterning of MAKE in native and non-native student writing. *Applied Linguistics, 22*(2), 173-195. https://doi.org/10.1093/applin/22.2.173

Anstey, M., & Bull, G. (2018). The picture book: Modern and postmodern. In P. Hunt (Ed.), *International companion encyclopedia of children's literature* (pp. 328-339). Routledge.

Bahns, J., & Eldaw, M. (1993). Should we teach EFL students collocations? *System, 21*(1), 101-114. https://doi.org/10.1016/0346-251X(93)90010-E

Birketveit, A., & Rimmereide, H. E. (2017). Using authentic picture books and illustrated books to improve L2 writing among 11-year-olds.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45*(1), 100-116.

Boers, F., Demecheleer, M., Coxhead, A., & Webb, S. (2014). Gauging the effects of exercises on verb–noun collocations. *Language Teaching Research, 18*(1), 54-74. https://doi.org/10.1177/1362168813505389

Chin, C. (2021). The impact of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n EFL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links to gende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7*(3), 1-26. https://doi.org/10.35828/etak.2021.27.3.1

Choi, S. (2017). Processing and learning of enhanced English collocations: An eye movement study. *Language Teaching Research, 21*(3), 403-426. https://doi.org/10.1177/1362168816653271

Davies, M. (2008-present).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560 million words, 1990-present][Data set]. https://corpus.byu.edu/coca

Donelson, K. L., & Nilsen, A. P. (2005). *Literature for today's young adults* (7th ed.). Pearson Education.

Hill, J. (2001). Revising priorities: From grammatical failure to collocational success. In M. Lewis (Ed.),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pp. 47–69).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Hunston, S. (2022). *Corpora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Ji, M. (2018).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L2 vocabulary acquisition factors: Cross-sectional study.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3*(1), 369-396.

Laufer, B. (2011). The contribution of dictionary use to the production and retention of collocations in a second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4*(1), 29-49. https://doi.org/10.1093/ijl/ecq039

Laufer, B., & Waldman, T. (2011). Verb-noun collocations in second language writing: A corpus analysis of learners' English. *Language Learning, 61*(2), 647-672. https://doi.org/10.1111/j.1467-9922.2010.00621.x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Mayer, R. E. (1997). Multimedia learning: Are we asking the right ques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32*, 1-19. https://doi.org/10.1207/s15326985ep3201_1

McCarthy, M. (2018, January 4). Why good language teachers should take collocations seriously. *World of Better Learning*. https://www.cambridge.org/elt/blog/2018/01/04/why-good-language-teachers-should-take-collocations-seriously

Nam, H. (2013).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eaching English collocations to Korean EFL learner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1), 59-86.

Nesselhauf, N. (2003). The use of collocations by advanced learners of English and some implications for teaching. *Applied Linguistics, 24*(2), 223-242. https://doi.org/10.1093/applin/24.2.223

Nikolajeva, M., & Scott, C. (2013). *How picture books work*. Routledge.

Paivio, A. (1991). Dual coding theory: Retrospect and current status. *Canadian Journal of Psychology, 45*(3), 255-287. https://doi.org/10.1037/h0084295

Pellicer-Sánchez, A. (2015). Developing automaticity and speed of lexical access: The effects of incidental and explicit teaching approaches. *Journal of Spanish Language Teaching, 2*(2), 126-139. https://doi.org/10.1080/23247797.2015.1104029

Peters, E. (2014). The effects of repetition and time of post-test administration on EFL learners′ form recall of single words and collocations. *Language Teaching Research, 18*(1), 75-94. https://doi.org/10.1177/1362168813505384

Peters, E. (2016). The learning burden of collocations: The role of interlexical and intralexical factors. *Language Teaching Research, 20*(1), 113-138. https://doi.org/10.1177/1362168814568131

Walsh, M. (2009). *10 things I can do to help my world*. Walker Children's Paperbacks.

Webb, S., Newton, J., & Chang, A. (2013). Incidental learning of collocation. *Language Learning, 63*(1), 91-120. https://doi.org/10.1111/j.1467-9922.2012.00729.x

Wolter, B., & Gyllstad, H. (2011). Collocational links in the L2 mental lexicon and the influence of L1 intralexical knowledge. *Applied Linguistics, 32*(4), 430-449. https://doi.org/10.1093/applin/amr011

Wolter, B., & Gyllstad, H. (2013). Frequency of input and L2 collocational process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5*(03), 451-482. https://doi.org/10.1017/S0272263113000107

Wray, A. (2002). *Formulaic language and the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Yamashita, J., & Jiang, N. (2010). L1 influence on the acquisition of L2 collocations: Japanese ESL users and EFL learners acquiring English collocations. *TESOL Quarterly, 44*(4), 647-668. https://doi.org/10.5054/tq.2010.235998

부 록

사전/사후/지연 연어 평가지

_____초등학교 ____학년 ___반 __번 이름:_____

※ <보기>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영어 단어**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톰은 **좋은 친구**이다. Tom is a ☐☐☐☐ friend.
1	불을 꺼 주세요. ☐☐☐☐ ☐☐☐ the light, please!
2	우리는 물을 아껴야 해요. We should ☐☐☐☐ ☐☐☐☐☐.
3	네 방에서 나가지 마라. Don't ☐☐☐☐☐ your ☐☐☐☐.
4	하루에 세 번 이를 닦으세요. Please ☐☐☐☐☐ your ☐☐☐☐☐ three times a day.
5	당신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Don't ☐☐☐☐☐ your trash ☐☐☐☐.
6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요! Let's ☐☐☐☐ the world ☐☐☐☐.
7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Don't ☐☐☐☐ the ☐☐☐☐s.
8	쇼를 시작할 준비를 하세요. Please ☐☐☐ ☐☐☐☐☐☐ for the show.
9	TV 전원을 끄세요. Please ☐☐☐☐☐☐ the ☐☐.
10	집 주변을 살펴보세요. Please look ☐☐☐☐☐☐ the ☐☐☐☐☐.
11	학교까지 걸어가니? Do you ☐☐☐☐ ☐☐ school?
12	우리는 자동차 여행을 줄여야 한다. We need to ☐☐☐ ☐☐☐☐ on car trips.
13	봄에 우리는 씨앗을 심을 것이다. In spring, we will ☐☐☐☐☐ ☐☐☐☐s.
14	우리는 분리수거를 해야해요 We need to ☐☐☐☐ the ☐☐☐☐☐☐☐☐☐.
15	축구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Playing soccer ☐☐☐☐s a lot of ☐☐☐☐☐☐.
16	그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 He learned ☐☐☐☐☐☐☐☐ ☐☐☐ today.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방정선(교사)
대구영선초등학교
42423 대구시 남구 영선길 96
Email: bangssam98@youngsun.es.kr

Received: October 29, 2024
Reviewed: December 4, 2024
Revised version received: December 23, 2024